

# 與 비박주자들 잇단 ‘박근혜 때리기’

### 대선후보 경선을 싸고 갈등 지속 양측 공방 점입가경

### 친박 “도넛었다” 반박...비박, 대선후보 원탁회동 제안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불에 대한 친박(親朴·친박근혜)과 비박(非朴·비박근혜) 간 첨예한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비박주자들이 ‘박근혜 때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사실상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과 당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소통불통’, ‘1인 독재’, ‘사당화’ 등의 지적을 하는 가 하면 결혼이나 여성 관련 발언으로까지 수위를 높이며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거부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의 이미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친박계도 “치졸하고 유치하다”,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격렬 반

박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경우를 소개하면서 ‘어릴 때 꿈은 공공을 위해 밥을 바치는 것이었지만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위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혼자 살면서 스님이나 수사님들처럼 금욕적 삶의 윤리를 못 지킬 것 같아 내면의 정직함을 위해 결혼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특정인을 위한 발언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에 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박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오 의원은 18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여성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나라가 통일돼 평화로워진 후라면 몰라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면서 “분단 현실을 체감하지 않고 국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리더십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 대통령 불가론’을 공개 제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근혜 사당화’를 비판을 해 온 정몽준 전 대표도 “지도부가 특정한 처치만 살피고 있다”며 황우여 대표의 회동요청까지 거부한 채 박 전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친박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5년 9개월에 걸쳐서만 경선 불을 두세 사람이 몇 주만에 고치겠다는 것은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지도부를 향해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도 국민과 당원에 대한 무시이자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의원의 ‘여성 리더십 시기상조’ 발언에 대해 “분단의 고통과 국가안보에 대한 고뇌를 박 전 위원장보다 더 철저히 부동켜안고 이겨온 정치인이 또 누가 있는가”라면서 “이 의원은 ‘박근혜 흔들기’의 미명에서 헤어나서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도 19일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리더십 시기상조론”에 대해 “2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대표와 이 의원, 김 지사 등 비박주자 3인은 이날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경선 불 논의를 위한 ‘대선후보 원탁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회개원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 6월분 세비 전액 반납 결정

### ‘무노동 무임금’ 적용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해신안의 핵심 사안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하고 소속 의원 전원의 6월분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홍일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든 세비를 단체로 전액

자진반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6월 분 전액 세비는 17억원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가 법에 정해진 개인일을 못 지킨 데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고 총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6월 분 세비 전액반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세비 전액 반납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해신국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국회에서 제19대 총선 공약 실천 및 민주당 등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손학규는 ‘문재인 때리기’

### “대통령과 비서는 달라...나는 도지사·당 대표 출신”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TBS 라디오 ‘서화숙의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의원이 스스로 ‘가장 높은 대통령의 관점으로 국정 전반을 경험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은 데 대해 “대통령과 비서는 다르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모와 어떻게 갈라냐”라고 정면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19일자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문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 경험을 내세우는 데 대해 “자기 책임 하에 이뤄내고 만들어낸 걸 얘기해야 한다”며 “나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냈고, 당 대표를 하면서 야권 통합을

기어코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17~18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친노(親盧) 대선후보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 광주지역 언론간담회에서 “다음 대선에서 노무현 대 박근혜 구도가 된다면 누가 이기겠는가”라고 말했다. 한 측근은 “노무현 정권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최근 ‘친노’세력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서우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여성리더십 시기상조론’에 대해 “여성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는 민주주의적 소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통합진보 시당위원장 신·구당권과 후보 대결

### 윤민호 현 위원장·장연주 시민센터대표 출마

### 전남도당 경선은 김유욱·유현주 후보 맞대결

오는 29일 치러질 통합진보당 대표 경선이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간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당위원장 경선도 양측의 맞대결이 치러져 주목된다.

19일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1차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 등록 결과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 윤민호 현 위원장과 장연주 광주시민센터 공동대표가 출마했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며, 25일부터 29일까지 당원 직선투표를 통해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윤민호 후보는 옛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구 당권파로 분류된다. 장연주

후보는 옛 민주노동당 출신이긴 하지만, 혁신후보를 표방하며 옛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측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장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총선 당내 비례대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부정선거는 진보정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당의 공식 의결기구에서 인준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정하고, 당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당을

이중권력이라는 혼란 속에 빠뜨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지도부를 만들어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민호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통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질 높은 아권연대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2014년 광주시 진보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에는 옛 민주노동당 출신인 전 순천민중연대 대표 김유욱 후보와 전 전남도의원을 지낸 유현주 후보 등 2명이 등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강기갑 “당대표 광주시 지지 해달라”

통합진보당 강기갑 당 대표 후보가 19일 광주를 방문, 당원 등을 대상으로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이 정파 싸움을 지속하면서 패권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진보정치를 되살리고 아권연대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선 당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기자회견 뒤 광주 기아자동차와 광주역을 방문,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 정세균, 대선 출마 26일로 변경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대선출마 선언일을 애초 예정했던 24일에서 26일로 변경했다.

정 고문은 19일 일요일에 대선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으나 광장시장 상인들이 자신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평일에 출마를 선언해 달라고 요청해 26일 오후 2시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오늘부터 광주·전남 방문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다.

“소통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첫 지역 투어에 나선 문 고문은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취업박람회·광주노인복지회관·해남 대흥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 정동영 “대선 출마 조만간 결정”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19일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총선에서 어쩔다가 실종된 것을 걱정했고, 이런 차원에서 대선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 경매투자

▶실전경매 배우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수익 내실 분

▶4명한정 /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입찰활동비 / 교재비 등 회비 550만원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공동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전남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 (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